

## 중형항공기 조합 발족 항공기산업 발전에 거보 기록 1. 18 결성, 총회 이어 축하 리셉션 성황

한·중합작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의 우리측 컨소시엄인 한국 중형항공기 사업조합이 1월 18일 창립총회를 마침으로써 정식 발족되어 역사적인 항공기 개발시대의 막을 열었다.

이날 하오5시 조선호텔 자스민룸에서 개최한 “한국중형항공기 사업조합 창립총회에는 지분참여 14개사, 비지분참여(협력업체) 21개사 등 도합 35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갑 협회 기획이사 사회로 개최하여 국민의례와 성원보고에 이어 조합대표격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인 삼성항공의 이

대원사장(항공우주협회 회장)이 결성 총회 성립을 선언하였고 동사의 여영록이사가 조합결성까지의 경과를 보고(별항 참조)했다.

이어 이대원 사장의 인사가 끝난 뒤 이대원 사장이 의장이 되어 의안심의를 진행했다.

제1호의안인 조합결성취지문을 로스트웍스사 장세풍 사장이 낭독하여 동 취지문(별항 참조)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제2호의안인 사무국 관련 운영규정 및 회계처리 규정을 상정, 토의끝에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시키고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사업계획

개요의 보고를 들은 뒤 조합계약서 서명을 마치고 하오 6시 폐회함으로써 역사적인 중형항공기 사업조합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 경과보고

- 중형항공기 개발기관 확정(경제장관 회의) - '94. 8. 12
- 항공 3사 자율 합의 및 선정평가위원회 심의(주관회사 : 삼성항공) - '94. 9. 5
- 주관회사 선정(통상산업부) - '94. 9. 12
- 조합구성 지시(통상산업부) - '94. 10. 6
- 사업설명회 - '94. 11. 24
- 사업계획 확정(운영위원회) - '94. 12. 8
- 조합구성안 최종 확정(통상산업부) - '95. 1. 7
-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사 사전회의 - '95. 1. 10
- 조합결성총회 - '95. 1. 18

### 축하 리셉션

결성총회가 끝난뒤 하오 7시부터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조합창립을 자축하는 리셉션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우리협회 이대원 회장 등 회원사를 비롯 통상산업부 박재운 장관이 참석하여 치사를 한데 이어 국회 상공자원위원회 조순승 위원장이 축사를 보낸 외에 항공우주산업 관련업계 및 내외빈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중형항공기 사업조합 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 취지문

21세기를 향한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맞아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 현실에서 미래산업으로서의 항공우주산업은 최첨단 종합기술산업인 동시에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기술선도산업으로서 선진국 진입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산업이다.

그러나 반도체, 조선, 자동차산업 등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거나 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항공우주산업은 군용항공기 중심의 정비사업 및 면허생산 등을 통해 일부 제작기술만을 확보한 상태이며 설계등 고부가가치인 항공기 개발 기술은 크게 미흡한 상태이다. 더욱이 경제력이 우리보다 뒤지는 일부 국가들이 정부의 과감한 육성정책과 장기지원 전략에 힘입어 항공우주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2000년대 세계항공우주 10위권 국가 진입"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중형항공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업진행의 구심적인 「한국 중형항공기 사업조합」을 결성함으로써 새로운 국산 항공기 시대를 열게 되었다.

조합원들은 이를 통해 첫째, 국내 항공업체들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의 총력을 결집하여 중형항공기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둘째,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을 선진수준으로 제고하며 셋째, 항공우주산업 관련 분야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넷째,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국 항공산업의 세계화를 도모한다.

1995. 1. 18

한국 중형항공기사업조합원 일동

## 조합원사(지분참여자)

순번	회사명	대표
1	삼성항공산업(주)	이대원
2	(주)대한항공	조양호
3	대우중공업(주)	석진철
4	현대기술개발(주)	강학모
5	(주)기아기공	김재복
6	두원중공업(주)	이재천
7	만도기계(주)	정몽원
8	삼성전자(주)	김광호
9	(주)세일중공업	문연석
10	한화기계(주)	송재복
11	(주)동양강철	박 변
12	삼선공업(주)	민병재
13	오리엔탈공업(주)	김문용
14	한국로스트웍스공업(주)	장세중

## 협력업체(비지분참여자)

1	금성정밀(주)	12	수성공업사
2	(주)금호	13	(주)아시아나항공
3	대신금속(주)	14	(주)우신기연
4	(주)동서항공부품	15	우주항공산업(주)
5	동명중공업(주)	16	(주)은유항공정밀
6	덕산항공(주)	17	제영금형정공(주)
7	삼미금속(주)	18	천지산업(주)
8	(주)상양금속	19	(주)한국화이버
9	서울차체(주)	20	한일이화(주)
10	서울차체(주)	21	현대항공산업
11	선경인더스트리		

## 조합결성 협의

### 중형항공기 관련 체제 공식 발족

협회는 회원업체가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체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 지원제도'를 발간하여 회원사 및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동 책자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①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비 지원 ②투·융자 지원 ③기타 연구개발자금 지원 ④조세지원 등 4가지로 나누어 알기쉽게 정리하였으며 부록에는 공업발전법 및 시행령,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공동 운영지침,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운영지침 등을 게재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인도의 우주계획 간행

### 다음달 배포 예정

협회는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육성정책 수립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Asia News Agency가 94년 11월 발행한 '인도의 우주계획'을 전문번역하여 간행할 예정이다.

이 책은 인도의 우주산업 조직 구조, 위성프로그램, INSAT 위성 시스템, 미래계획, 발사체 프로그램, 미사일 개발계획, 미국과 인도의 MTCR 협정등 국내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기초 번역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다음달에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 지원제도 발간 배포

### 항공우주산업 자금·조세분야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조합결성을 위한 예비회의가 1월 10일 오후 3시에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삼성항공정담 부사장을 비롯하여 14개회사 임직원 30명외에 통상산업부 이원걸 항공우주공업과장과 협회 박병구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협회 김영갑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이원걸 항공우주공업과장의 인사에 이어 경과 설명, 추진일정, 조합구성 및 지분율, 계약서 및 규정, 사업계획, 총회계획 등 순으로 1차 합의된 사항등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중형항공기 사업조합”의 정관사항인 목적, 존속기간, 조합원 구분, 협력업체, 업무집행,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총회, 심의위원회, 사무국, 국제합작사, 지분 및 출자,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 전문인력 7,800명

### 49개 업체에 근로자수의 5.1%가 항공우주 인력 항공우주산업계 현황 집계

회원사의 인력 및 재무구조에 대한 기초자료를 집계한 결과 93년 기준 협회에 가입된 49개 업체의 전체 종업원수는 15만3천명이고 그중에서 항공우주분야 전담인력은 7,800명으로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3년 기준 전체 회원사의 매출액은 약 22조6백억원이며 그중에서 항공우주분야는 약 6천억원으로 집계되어 매출액 비중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회원사중에서 종업원이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은 20개사(40.8%)이며 그 이상인 업체가 29개사(59.1%)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1000명 이상인 업체가 19개사로 3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볼때 200억원 미만이 13개사(29.5%), 201억원~900억원이 9개사(20.5%), 901억원 이상인 업체가 22개사(50%)로 나타났다. (미조사 업체 5개사)

매출액으로는 50억원 이하인 업체가 7개사(15.9%), 50억~700

억원 업체가 16개사(36.3%), 700억원 이상인 업체가 21개사(47.8%)로 조사되었다.(미조사 업체 5개사)

## 총 2079건 처리

### 93년대비 13.6% 증가 94년 수입추천 및 관세감면

94년도 수입추천 및 관세감면 검토실적을 집계한 결과 수입추천 1214건(58.4%), 관세감면 865건(41.6%) 등 총 2079건으로 나타났다.

수요처별로는 수입추천 중에서 민간수요가 361건, 방위수요가 853건으로 나타났으며 관세감면 검토실적은 민간수요가 93건, 방위수요가 772건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는 수입추천이 26억1천6백만원, 관세감면이 4억8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다.